

犀ヶ崖(사이가가계)자료관

사이가절벽자료관은 “미카타가하라전투” 및 “엔슈대염불”에 대하여 이해를 깊이면서 그 지방에 전해지는 문화유산을 후세에 남기고자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절벽자료관에는 비디오 디오라마 전시물도 갖추어 있습니다.



사이가절벽자료관의 기본정보 주소 : 〒432-8014 浜松市中区鹿谷町 25-10 TEL/FAX : 053-472-8383
 개관시간: 9:00~17:00. 입장료: 무료
 휴관일 : 매주월요일(축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2/29~1/3
 액세스 : 하마마쓰성에서 환인해 보세요.

1573년 2월, 徳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미카타가하라에서 武田信玄(타케다 신겐)에게 전쟁을 걸었으나 결국은 패하여 하마마쓰성에 도망 갔습니다. 그 날 밤에 도쿠가와군은 사이가절벽부근에서 타케다군을 급습해서 타케다군의 인마를 사이가절벽에 쫓아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1939년에 시즈오카켄에 의해 단 “사이가절벽”이 “미카타가하라전장”의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된 타케다군의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이가절벽에서는 매년 7월 15일에 엔슈대염불이라는 행사가 열려집니다.



디오라마 미카타가하라전투



[사이가절벽]

“미카타가하라의 전투” 그 때 당시의 절벽의 규모는 동서로 약 2km, 폭이 약 50m, 깊이가 약 40m 인 V형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

이 절벽에서 많은 병사들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1985년 현재의 규모는 길이가 약 116m, 폭이 약 30m, 깊이가 약 13m 인 U형입니다. (왼쪽 사진)

[엔슈대염불] (왼쪽밑 사진)

엔슈대염불은 “미카타가하라전투중 사이가절벽에서 목숨을 잃은 타케다군의 병사들의 사령 또는 그 원한에 의해 생기는 역병이나 해충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시작된것이다”라는 전설이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江戸時代(에도 시대)에 와서 이렇게 사자를 공양하고 명복을 비는 것이 엔슈지방의 추석행사로 되었습니다.



일본종이 인형 엔슈대염불

하마마쓰안내인
 하마마쓰관광 볼런티어 가이드회
 〒430-0946 浜松市中区元城町 100-2(浜松城内)
 TEL&FAX 053-456-1303
 홈페이지 <http://www.hama-svg.jp/>